

AI 인프라·기업 유치·인재 양성... 광주 신경제지도 구축

광주·전남 반도체특화단지 유치 총력...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운영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 경쟁·자율주행 실증 등 미래차 대전환 추진

광주시에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도시 광주'의 신 경제지도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선 8기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광주 신경제지도'는 기존 제조업과 인공지능 산업에서 확보한 경쟁력을 확장하고, 반도체·차세대 배터리·자율주행차·정밀의료·국제마이스 등 5대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민선 8기 출범 반년 만에 '인공지능 광주'의 꿈도 하나 둘씩 실현하고 있다.

2020년 시작된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사업은 핵심 인프라인 국가AI데이터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도 광주로 몰려들고 있다.

인공지능 인재 양성도 활발하다. 광주시가 지원하고 있는 국가 유일의 'AI 사관학교'는 2020년 1기 155명을 시작으로 2021년 2기 157명, 2022년 3기 302명 등을 배출했다. AI영재고 설립도 첫발을 땀다.

인공지능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5대 핵심산업의 성장 발판도 탄탄해지고 있다. 광주시는 전남도와

함께 상생 1호 협력사업으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광주 제조업의 43%를 차지하는 자동차산업도 친환경 미래차 대전환이라는 '모빌리티 지도'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친환경 미래자동차 부품을 개발하고 기업을 지원할 핵심 시설인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와 '부품인증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빛그린산업단지에 위치한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는 국내 최대 166종의 친환경자동차 부품 시험·인증장비를 구축해 기업의 시제품 제작·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올해는 공인시험기관(KOLAS) 인증을 획득해 연구개발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친환경자동차·부품 인증센터'는 자동차의 충격안전성, 충돌안전성·친환경자동차의 심장인 배터리 안전성을 시험하고 인증하는 국내 첫 친환경

경차 전용 공인인증기관으로, 3개의 시험동과 26종의 장비를 갖추고 있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배터리 안전기준 전체 12개 항목을 시험·인증할 수 있는 공인 기관이기도 하다.

시는 또 전기차와 자율주행 중심의 모빌리티 전환에 대응해 관련 기업과 인프라를 집중화 할 수 있는 100만평 규모의 미래자동차 국가산단 유치전에도 뛰어든 상태다.

광주시는 모빌리티 핵심인 자율주행 시대에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등 자율주행 실증장비 25종을 구축했으며, 노면정소차량과 폐기물 수거차량에 대한 무인 자율주행 실증, 자율주행 기반 무인 스토어 및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사업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국토부 주관 첫

번째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평가에서 우수 등급평가를 받기도 했다.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친환경 미래차 대전환도 빼놓을 수 없는 미래 먹거리 사업 중 하나다. 광주시는 지난해 하반기 전기차용 배터리 모듈, 팩시스템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을 새롭게 시작했으며, 2026년까지 5년간 137억원(국비 50억원·시비 75억원·민자 12억원)을 투입해 전기차 배터리 팩·모듈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하고 성능평가 장비 등을 도입한다.

강기정 시장은 "반도체, 차세대배터리,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국제마이스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신경제지도를 완성해 내일의 경쟁력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강기정 시장, CES 참가 위해 美 출국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12일까지 실리콘밸리 등 방문

강기정 시장 등 광주 대표단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3' 참가를 위해 4일 출국했다.

대표단은 오는 12일까지 6박 9일 일정으로 라스베이거스와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광주 세일즈'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CES(미국 소비자전자제품전시회)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관하는 스마트가전, 5G, AI, IoT, 헬스케어, 자동차 기술 등 미래 기술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대형 전시회다.

강 시장은 현지에 도착하면 라스베이거스 ESTV 스튜디오에서 ESTV와 e스포츠 글로벌 대회 공동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5~7일에는 CES 2023 행사를 참관하고, 특히 5일에는 '광주 공동브랜드 홍보관' 개관식에 참석해 참여 기업 제품을 둘러보고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8일부터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 나선다. 강 시장은 인공지능(AI) 전문가 등과 만나 스타트업 현황을 청취하고 국내 AI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다.

구글과 UC버클리대 등 방문, 실리콘밸리 혁신 기업인 라이징타이드펀드(RTF)와 업무협약, 글로벌 투자사인 알토스 벤처스와 간담회 등도 예정돼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학교 생활 잘해보자~" 4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남초등학교에서 열린 2023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에서 선생님이 면담을 마친 신입생과 하이파이브하며 응원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농어업용 면세유 520억원 추가 지원

전남도·시·군 예비비 252억 투입...유류비 인상분 50% 보조

전남도가 농어업용 면세유류 가격이 상승하면서 도내 농어민의 부담이 커지자 정부 지원금에 도 예비비를 더해 지원에 나선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지원금 268억원에 도와 시·군이 긴급 예비비 252억원을 투입, 520억원으로 유류비 인상분의 50%를 지원한다. 한파 등으로 수요는 늘어난 반면, 가격은 지난해 1월보다 평균 426원가량 올라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이 커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농어업용 면세유류 가격 상승에 따른 선제적 지원으로 전국 확산을 주도하기도 했다.

전남도는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휘발유와 경유에, 겨울철 수요가 많은 난방용 등유를 추가해 보다 더 촘촘하게 지원한다. 최근 농식품부도 고유가로 어려운 시설원에 농업인(법인)에 10월부터 12월까지(3개월) 난방용 면세유류에 대해 리터당 최대 130원을 유가연동보조금 형태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일반 평균가격과 기준가격(2022년 5월 평균가격의 88.5%) 차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전남도는 농식품부의 특별지원이 시설원에농업인(법인)으로 한정됐고, 지원금액도 현장 농업인이 수용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도 자체적으로 지원금액을 추가해 지원하고, 휘발유와 경유도 유종별 인상액의 50%를 지원한다.

해수부도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지원했던 어업인 면세경유에 대해 리터당 최대 112.5원을 2개월(11월-12월) 연장 지원한다. 어업인 보조금은 면세경유 가격에서 기준가격(리터당 1070원)을 뺀 금액에서 50%(리터당 최대 112.5원 지원)를 곱한 금액이다.

전남도는 해수부의 지원 예산에 도 자체적으로 지원금액을 추가(리터당 176원)해 지원하고 휘발유와 경유도 유종별 인상액의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외국인투자기업 인센티브 확대

국내 복귀 기업 도비 지원 등 투자심리 개선 위해 조례 개정

전남도가 반도체, 해상풍력, 우주항공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기업 인센티브를 대폭 개선한 개정 '전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을 2023년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조례 및 시행규칙은 최근 계속되는 경기 침체 및 수도권 규제 완화 등으로 위축된 기업의 지방 투자심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 유체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대상 확대 ▲산단 분양률 제한없이 입지보조금 지원 ▲

근로생활개선지원금, 시설용지임대료 신설 ▲국내 복귀기업 보조금 및 고용창출장려금 신설 등이 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기업에 지원하던 보조금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완화해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을 의무화해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국내기업 지원의 경우 기숙사 인차비 등을 최대 3억원을 지원하는 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을 새로 만들어 기업의 부담을 줄여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돕기로 했다.

입지보조금은 기존 분양률 80% 미만 산단 입주 기업에 지원하던 것을 분양률 제한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개발한 국가항 배후단지에서 해상풍력 산업 관련 기업이 입주하면 최대 50억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해외로 진출한 국내 복귀기업이 전남에 투자할 경우 지원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에 국내기업 지원 제도를 준용하도록 해 입지, 시설,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등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받은 국내 복귀기업이 추가로 2년간 최대 1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